

장흥군, 미래 인재육성 위해 지역사회와 '맞손'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11개 사업...12억여 원 투입

'글로벌 인재 육성' 해외 비전캠프·문화탐방 실시

장흥군이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저출산으로 학생수 감소의 위기를 맞은 장흥군은 민·관·학이 함께 교육공동체를 구축해 미래형 교육지구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장학교육지원청을 비롯한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연대와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장흥군은 먼저 미래인재교육을 위한 환경 개선에 나섰다.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혁신학교 교육지구 운영, 원어민 보조교육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 12억여 원을 투입했다.

지역 우수인재의 역의 유출을 막고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통한 대학진학 용이성 등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평초등

학교 5명, 장평중학교 2명을 유지하기도 했다. 인재육성 장학금을 통한 교육역량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장흥군은 장학생선발, 고등학교 명문학교 육성, 청소년오케스트라 동아리, 문립 의향의 열 계승교육 등 총 11개의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9억여 원이 투입된 장학사업은 지역 교육기반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장흥군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 성적우수 중학생 관내 고등학교 진학, 대학신입생, 다지녀, 체육특기자, 농수산·말관련 대학생 등 다양한 지역 인재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문립의향 열 계승 교육'과 '마을교육지원센터 지원', '초중고생 진로직업체험', '학습멘토링 지원단 운영'등 특색있는 장학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 글로벌인재육성센터 운영, 해외역사문화탐방, 해외



비전캠프를 지원해 학생들에게 세계를 향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있다.

중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해외역사문화탐방을 지원해 안중근 의사의 유적지를 포함한 문화답사 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성적우수자 등을 대상으로는 해외 명문대학교 도시를 탐방하는 해외비

전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2023년에도 인구감소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장흥군과 장학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합심해 지역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흥=김도영기자

해남군, 이주여성 다문화 통번역 지원 서비스 호응 7개국 제공...일자리 창출도 한몫

해남군이 초기 결혼이민자가 서툰 한국어 말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인 의사소통 등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통번역 서비스를 신청하면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 통번역을 지원한다. 통번역 서비스는 문화가 다른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생활 의사소통과 함께 해남군에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등을 설명해 주어 일상 적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서비스는 일본,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러시아, 영어 등 7개국 언어에 대하여 12명의 결혼이민자들이 참여하여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혼 초기에 결혼이민자면 누구나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534-0017)로 통번역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통번역 서비스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완도군, 해양치유 활성화로 신 해양관광시대 연다

완도군은 '신 해양관광시대'를 열기 위해 민선 8기 공약 중 해양치유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치유 분야 공약 사항으로는 ▲빅데이터 기반 해양치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웰니스산업 특화도시 지정 ▲해양치유 스포츠 재활센터 건립 등이다.

'빅데이터 기반 해양치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내년 5월 시범 운영 예정인 완도해양치유센터를 통해 4차 산업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웰니스산업 특화도시 지정'은 최근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웰니스 관광지로서의 완도군의 위상을 강화하고, 해양치유 특화 웰니스 특화도시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해양치유 스포츠 재활센터 건립'은 전지훈련으로 완도를 방문하는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실업팀 선수들이 겪는 부상을 해양자원을 활용해 치유하고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오직 강진에서만 맛보고 즐기는 하멜촌 맥주 개발 '첫발'

맥주·커피 시제품&브랜드 개발 용역 실시

강진군이 하멜촌 맥주&커피(가칭) 제조를 위한 시제품 및 브랜드 개발 용역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하멜촌 맥주' 개발을 알렸다.

우리나라를 최초로 유럽에 알린 헨드릭 하멜이 체류했던 강진군 병영면에 하멜촌 맥주라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전략이

다. 최근 상승세인 수제 맥주 열풍에 힘입어 하멜의 고향인 네덜란드 맥아와 강진 특산물 쌀귀리를 이용해 스타우트(흑맥주), IPA 등 총 5종류의 하멜촌 맥주를 개발하고 내년 1월 중 시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선호도 조사를 위해 내년 1월에서 2월 중

판파티를 활용한 시음회를 3회 이상 실시하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맥주를 하멜기념관에 판매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하멜기념관 내에 맥주와 커피 판매 설비도 갖춰진다.

또, 하멜촌 맥주&커피에 대한 브랜드 개발 용역으로 BI와 맥주 캔과 병 라벨 스티커 및 하멜 커피 캡슐 디자인을 개발해 강진에서만 맛보고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강진=김영일기자

'극단 선택' 막는다...진도군, '생애주기별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프로그램 진행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생명사랑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노인 우울증 예방을 위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 심리 치료 예방 프로그램 '내·안·애(愛)'를 운영하고 있다.

'내·안·애(愛)'는 '내가 안아주고 사랑할게'의 줄임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스트레스 관리법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주제로 7회에 걸쳐 프로그램으로 진행,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살 고위험군 어르신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노인 자살 문제를 예방하고 우울감 감소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또 중·고등학교 학생과 직장으로 찾아가는 생명사랑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오는 14일(수)에는 진도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샌드아트공연도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생명 존중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유관 기관과도 협조체계를 강화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건강문제·우울감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진도=조상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